

차세대 TV '라이프 스타일' 로 간다

삼성전자 세리프TV ·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등 디자인 강조... 이용 가능한 콘텐츠 강화에도 박차

"굳이 화소 수가 높은 TV를 구입할 생각은 없다. 비싸기도 하고 평소 일하느라 집에서 텔레비전 볼 편이 자주 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을 본다"

결혼을 앞둔 윤 모(27)씨는 혼수용품으로 TV를 보러 다니면서 화질이나 크기보다 디자인을 중요시 한다. 그에게 TV는 기능성 가전이기보다 '인테리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윤씨는 "TV보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콘텐츠를 감상할 일이 많아 TV 화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사부모님과 살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 유 모(40)씨는 최근 스마트 TV를 구입하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다른 기능보다도 해당 제품에서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공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생각이다.

유씨는 "집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콘텐츠를 즐기다보니 얼마나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수시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며 "화면 크기나 화소는 요새는 다 좋은 것 같아서 신경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요자들의 TV 소비 방식이 변하고 있다. 몇 천만을 넘나드는 화소 수와 대형 화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주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TV가 인테리어이자 콘텐츠로서 얼마나 소비자들의 생활에 잘 녹아드느냐가 핵심 유인이 됐다.

삼성, LG 등 국내 TV 기업들도 이 같은 기류에 적극 반응하고 있다. 올해 선보인 TV들은 본질적인 기능들은 기본으로 갖추고 구매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을 저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삼성전자가 올 초 내놓은 '삼성 세리프TV'는 디자인 TV의 대표격이다. 명칭도 문자의 끝을 약간 튀어나오게

한 '세리프' 글꼴에서 따왔다. 독특한 'I'형 외관을 지녀 주변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자체가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도록 이음새 없이 만들어진 프레임과 패브릭으로 처리된 뒷면을 갖췄다. 스마트 기능을 감각적으로 표현해주는 세리프 TV만의 '컷인모드' UI 등도 장점이 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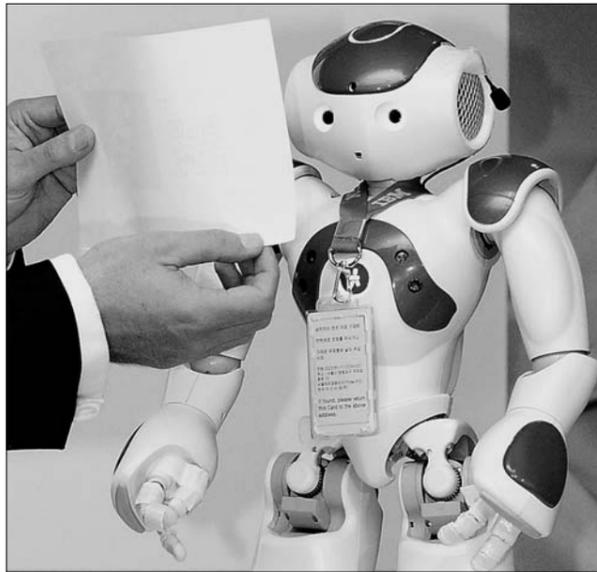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리프TV의 대형화를 고민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세리프 TV의 경우 굳이 화면 크기를 늘리는 게 의미없다. 찾는 고객들이 이미 디자인적 요소를 고려하고 구입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TV는 라이프 스타일인 만큼 발전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LG의 초 프리미엄 브랜드 중 하나인 시그니처 올레드 TV도 디자인에 공을 들였다. '가전이 아닌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를 고용하며 구분무의 '디자인 경영'이라는 단어까지 내놓았다.

시그니처 TV는 2.57mm의 얇은 두께에 전후좌우 어디서 보더라도 일체감을 살린 디자인이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인테리어에 무리가 없도록 신경 쓴 흔적이 엿보인다. 올레드 패널 뒤에는 강화유리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했다.

기업들은 TV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2분기부터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LG전지도 웹OS 3.0으로 넷플릭스를 서비스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나오미 IBM 커넥트(Connect) 2016 코리아 기자간담회가 열린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앳 비즈니스 담당 제임스 레오널드 전무가 로봇 나오미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내 최초 공개된 로봇 나오미(Nao-mi)는 IBM 왓슨의 코그니티브(인식) 컴퓨팅 기술이 적용됐으며 간단한 대화뿐 아니라 '강남스타일' 등의 댄스, 왓슨 API를 활용한 개인 성향 분석 등을 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별도 가입 없이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TV 플러스' 서비스를 확대했다. CJ E&M, EBS, JTBC가 제공하는 방송 콘텐츠 외에도 웹 드라마, 인기 유튜브 영상 등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콘텐츠까지 볼 수 있게 했다. 뉴스·시사 채널도 추가됐다.

LG전지도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다양한 채널을 실시간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는 '채널

플러스' 기능을 탑재했다. 예브라운 티비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TV 시장의 변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 콘텐츠 전달 수단이 TV 형태로 언제까지 존재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세리프TV처럼 라이프스타일에 가까운 콘텐츠 소비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진수 기자

홍순경 한국지엠 단장 산자부장관상

'자동차의날' 산업발전 공로 인정받아

한국지엠주식회사 홍순경 대외협력단장이 '제13회 자동차의날'을 맞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홍순경 단장은 28년간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20명에게 주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 홀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정부, 유관기관, 완성차 업계 사장단 등 300여명의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홍 단장은 (사)전북자동차포럼창립, 전북자동차산업교류회경차유류환급법개정, 출고야적장산단법개정,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대우차 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 내고장생산품애용본부, 군산공장발전시



민운동본부, 한국지엠차애용 운동본부, 전라북도투자심의위원, 전북자동차기술원이사, 2015년차량 900여대 판매, 각 대학교 산학협동 체결을 통한 인재육성, 사회공헌활동 등을 인정받았다. 한편 자동차의 날은 99년5월12일 수출1천만대 달성을 기념하여, 2004년에 제정하여 기념하고, 자동차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포상하며 축하 하는 행사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사학연금, 통합연금포털서 확인 가능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에 들어가면 사학연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연금포털 조회서비스에 사학연금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합연금포털은 연금 수령시점과 연령별 예상 연금액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로 개인·퇴직연금(88개 금융회사 등 제공)과 국민연금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까지 10만여명이 가입했고누

적 조회자수는 6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달부터는 사학연금 가입자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사학연금 정보를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대비 재무설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으로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에 30인 미만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과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도 단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쉐보레 '올 뉴 말리부' 계약 1만대 돌파

영업일 기준 8일만에

쉐보레의 중형 세단 '올 뉴 말리부'가 사전 계약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1만대를 돌파했다.

12일 한국GM에 따르면 올 뉴 말리부는 지난 4월27일 사전계약을 시작한 이래 영업일 기준 8일만에 사전계약 대수 1만대를 넘어섰다.

한국GM 관계자는 "준대형급보다 긴 전장 등 차급을 뛰어넘는 크기와 고성능 터보 엔진의 주행성능, 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에도 2310만원부터 시작하는 등 탁월한 가성비에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밝혔다.

쉐보레는 전국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며 이런 반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5월 중순부터 500대 이상의 시승 차량을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 배치한다. 시승을 원하는 고객은 쉐보레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쉐보레 홈페이지(www.chevrolet.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20~29일 코엑스 SM 타운 광장에 올 뉴 말리부 타운을 세우고 일반인이 말리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20~21일 신차 출시 기념 파티도 개최한다.

이일섭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이일섭 전무는 "올 뉴 말리부가 고객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마케팅 활동으로 말리부의 월등한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4월도 5조3000억 ↑

은행 주택담보대출 4조6000억원 증가... 집단대출·봄 이사철 수요 증가 영향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도 가계 빚이 여전히 몸집을 불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정책포기 지원 포함)은 740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증가액(8조5000억원)보다는 3조원 가량 축소된 수준이지만, 2010~2014년 4월 평균치인 2조

2000억원에 비해서는 약 2.4배 많다.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4월중에서는 역대 두 번째 높은 증가폭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동안 4조6000억원 증가한 491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2014년 4월 평균치인 1조8000억원의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가 늘면서 대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8600호로 전월(7100호)보다 다소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7000억원 늘어난 16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 증가액은 6조7000억원으로 전월 증가액인 7000억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감소세를 보였던 대기업 대출이 지난달 2조원 늘어 증가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1분기 말 대기업의 일시 상환분 등이 재취급된 영향이다. 중소기업 대출도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전월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은행 수신액은 11조원 감소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들의 인출로 8조8000억원 빠졌고, 일부 은행의 순상환 등으로 양도성에금증서(CD)가 5조1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분기말 일시적으로 인출됐던 일부 금융기관의 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총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